

휴거와 구원과 말씀의 확산: 그리스도인을 위한 필수 백신 이야기(레프트 비하인드의 진실 ㄱ)

성경말씀: 살전4:16-18

지난 몇 주 동안 휴거와 재림 설교, 마지막 시대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 휴거

물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우리는 죽고 공중 강림 시 부활할 것이다.

오늘은 휴거 시리즈 정리하면서 < >, 백신과 확산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설교의 이해를 위해 먼저 백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이유 중 하나: 여러 사람들이 왜 코로나 19

백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고 해서

코로나 19 백신

아는 바와 같이 코로나 19 팬데믹이 이미 1년 8개월 동안 세상을 휩쓸고 있다.

너무나 많은 분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방역에 매진하는 의료인들, 우리 주님의 위로, 평안을 기원한다.

이러는 가운데 백신 강제 접종, 백신 여권 등 여러 가지 백신 관련 문제들이 나오고 있다.

또 코로나 19 백신이 계시록의 짐승의 표다 등과 같은 허위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대해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고 백신의 목적을 살펴본 뒤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간다.

(*) 우리나라 면역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는 올해 2월에 은퇴하신 서울대 의대 이왕재 명예교수(면역학 박사), 2021.8.21. 말씀하신 것 요약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여 개의 감기 바이러스 중의 대표적인 바이러스다.

사스, 메르스도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심한 발열과 두통을 동반한다.

감기는 일반 바이러스다. 독감에 비해 약한 콧물과 발열과 두통을 동반한다.

코로나 변종이 생겨도 코로나 19는 감기일 뿐이다.

지금의 코로나 19는 감기로 토착화되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다.

오히려 백신 접종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 통계 자료가 증명한다.

(*) ● 한국의 감염병 최고 권위자는 서울대의 오명돈 교수다. 그는 정치색이 전혀 없는 감염병 학자다. 그는 엇그제도 “집단 면역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 이스라엘, 영국 등에서 집단면역이 불가능한 것을 입증했다.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화이자와 모더나를 맞았는데도 코로나 확진자가 백신 접종 이전처럼 늘어났다. 또한 백신의 유효 기간은 6개월에서 1년이다. 그러므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상한 현상

- 6시 전까지는 4명이 밥 먹어도 되고 6시 이후에는 2명만 밥 먹어야 하는 것은 넌센스다. 말이 되는가?
- 건물 안에서는 마스크를 벗고(밥 먹고 대화할 때) 밖에서는 마스크를 쓴다
- 심지어 혼자 걸으면서도 마스크를 쓴다. ● 최소한 밖에서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 지하철, 백화점, 콘서트장은 코로나 감염이 안 되는데 이상하게 가장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교회에는 감염이 된다고 한다. 그래서 교회에는 모이지 말라고 한다.
- 백신의 효과가 전혀 없다는 말이 아니다. 대다수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예방 효과가 없지만 중증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피를 타고 돌게 되므로 항체가 효과적으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기저 질환, 중증 환자들에게 집중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해야 한다.

세상 뉴스

영국, (*) 덴마크, 미국 등 대다수 선진국들이 이제는 코로나 19와 함께 사는 길을 택하고 있다. Live with corona 무조건 거리 두기로 일상생활을 막는 것으로는 국민들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

이 외에도 코로나 19 백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떠돈다.

코로나 19 백신은 mRNA 백신이다. 이것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산화 그래핀이 필요하다.

산화 그래핀으로 인해 2-3년 내에 죽을 수 있다. 다른 장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wifi가 된다.

결국 통제 수단이다 등등. 사실 아무도 정확히 모른다. 다만 공포를 조성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말들이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백신에 대한 공포가 여러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 이러다 보니 우리 설교 댓글에 왜 목사가 이것을 맞아야 하는지, 맞으면 안 되는지 설교를 안 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나의 대답: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한다.

목사는 1차적으로 사람의 영적인 상태, 정신 상태를 다루는 사람이다.

더욱이 목사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 말라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백신 접종도 정부의 강제 조치 사항이 아니므로 각자가 정확한 정보를 찾아서 접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특히 음모론에 빠진 다수: 나보고 반드시 접종하면 안 된다고 설교하라고 강요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강제하는 적그리스도나 공산주의자가 아니다.

우리 교회의 원칙, 신약 시대 교회의 원칙(고후1:24).

접종을 하든, 안 하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 C 고용량 복용, 징크, 비타민, 운동 등을 유지해야 한다.

백신이란 무엇인가?

1. (*) 백신이란

병원체의 감염이 있기 전 인체 내에 인위적으로 약독화된 병원체 등을 주입하여 인체의 면역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따라 인체가 향후 병원체에 감염되는 피해를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즉,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등을 약하게 만들어 주사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항체를 형성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한다는 개념이다. 인체는 가짜 병원체인 백신으로 면역력을 키움으로써 나중에 진짜 병원체가 침투해 오더라도 이를 견뎌낼 수 있게 된다. 백신은 1796년 영국의 에드워드 제너가 당시 사망률이 40%에 달했던 천연두를 치료하기 위해 처음 개발했다.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종류가 다양하다: 장티푸스, 콜레라, 페스트, 결핵예방백신, 소아마비 백신, 홍역, 간염 예방 백신 등 수많은 백신이 개발되었다.

2. 백신의 원리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은 크게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으로 구분된다. 그 중 후천성 면역은 여러 특징을 갖는데 그중 하나가 면역 기억이다. 후천성 면역의 기억은 이전에 인체에 침범했던 병원체의 정보를 기억하여, 미래에 같은 병원체에 감염되면 이에 대해 더 빠르고 강한 면역반응을 유도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기억 작용은 기억 T 림프구와 기억B림프구에 의해서 일어나며, 백신은 이런 기억 작용을 이용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백신 접종을 통해 병원성은 없지만, 특정 병원체에 대한 항원을 인체에 주입하면 우리 몸에서는 가벼운 증상, 혹은 질병에 대한 증상 없이도 병원체에 대한 기억 림프구들을 생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억 림프구는 백신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홍역 백신 같은 경우에는 평생 동안 그 기억을 유지할 수 있다.

3. 백신의 효과

18세기까지 천연두에 걸리면 사망률이 40%, 홍역, 결핵 무서운 병들이 있다.

수많은 아이들이 죽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 죽을 확률이 크므로 현대 의학, 다양한 백신 개발, 위험한 병에서 구출되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번의 코로나 19 백신 문제도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예방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접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균은 감기 균이라 1차로 상기도에 침범하므로 백신으로 인한 항체가 힘을 쓰지 못한다. 항체는 피 안에 있으므로. 그래서 중증으로 넘어가서 피에 문제가 생기면

드디어 항체가 작용한다. 따라서 대다수 건강한 사람들은 맞으나 안 맞으나 예방 효과 자체는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라고 다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감기 바이러스라는 특수한 사례에만 해당된다. 홍역, 간염 등 바이러스가 피를 타고 다니는 경우는 백신 효과가 거의 100% 나타난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다.

왜 오늘 백신 이야기를 길게 했는가?

이 세상에는 악한 질병을 일으키는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병원체)이 존재한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들이다. 에덴동산에는 이런 것들, 사망, 질병이 없었다. 코로나 19 같은 감기 바이러스 말고 대다수 유해한 것들은 지금 거의 다 퇴치되고 있다. 물론 인간의 한계 때문에 100% 퇴치는 불가능하지만. 에이즈 같은 경우 끝없이 변한다.

핵심: 악한 병원체를 가진 백신 주사, 항체가 생기고 몸에 그 병원체에 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병원체가 피를 타고 침투하려고 하면 항체가 즉시 죽여 버린다. 건강 유지, 수명 연장, 행복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땅에 태어나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다양한 백신 주사, 지금 코로나 19 백신도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더 오래 살고, 더 행복하게 살려고 집중을 한다.

구원의 백신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고 가야 한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다양한 백신을 맞고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다. 과거 사람들은 백신이 없어서 50-60세에 죽었다. 수명의 차이는 있지만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사람은 다 죽는다.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과 공간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말한다.

그런데 죽는 사람의 다수가 마귀와 함께 지옥 불속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필요한 여러 백신들도 맞고 동시에 지옥 불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는 백신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인간과 짐승의 차이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했다(창1:27). 그 형상 중 하나는 불멸성이다.

하나님은 불멸하신다. 그래서 인간도 불멸한다.

이 땅에서 각종 질병을 무서워하고 코로나 19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영원무궁토록 지속되는 지옥 불속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죽어 봐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게 해 주셨다.

우주, 양심, 인간의 문화, 유대인, 성경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 우주보다 더 크시다. 인간의 모든 세포 속의 모든 정보, 그보다 더 많은 공간의 별들의 수효와 이름을 다 기억하실 정도로 위대하신 분이시다(시147:4).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번 죽는 것은...(히9:27),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롭다면 지옥 불속을 벗어나기 위한 백신을 맞아야 한다. 효과가 영원무궁한 백신 이런 백신은 사람이 줄 수 없다. 만들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불교, 이슬람, 천주교, 유교, 이런 데 가서 기웃거리면 안 된다.

교주가 사람이라 죽는 데 가면 안 된다. 신천지, 문선명, 안상홍, 안식교, 몰몬교

니체, 러셀, 다윈, 도킨스, 스티븐 호킹,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팀 쿡, 저커버그, 바이든, 교황 시진핑, 다 죽어서 벌레의 밥이 될 존재들이다,

이런 데서, 나와 차원이 같은 데 사는 존재들에게서 영원을 살기 위한 백신을 구하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와 다른 시간과 공간에 존재하는 분,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런 분이 주시는 백신을 받아야, 의지해야 영원한 세상에 갈 수 있지 않는가?

우리에게 머리가 있다면 이럴 때 써야 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출3:14). 이런 분,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백신을 주시는가? 성경의 핵심

인간의 죄, 하나님의 공의, 지옥 불속, 대신 속죄할 구원자

기독교의 백신: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다. 지옥 불속에 가는 이유도 죄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롬3:10, 23).

그래서 인간이 된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공의 만족, 지옥 형벌 체험, 또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데모로 보여 주심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영원한 항체가 생겨서 모든 죄들이 제거되고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 백신을 맞는 것이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백신이 있어야 영원무궁토록 죄에서 벗어난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백신이다.

이 무료 백신을 맞았는가? 안 맞았으면 오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여 무료로 맞아야 한다.

확신의 백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백신을 받은 뒤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산다.

이 땅에는 홍역, 천연두, 간염 등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죄들이 많다.

눈으로 보는 거의 모든 것이 우리를 죄로 이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요일2:16)

여기에 대한 백신도 맞아야 한다. 백신은 예방 효과, 기억하는 효과

2학기가 시작되어 아이들이 다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면 여러 가지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잠 1:10-13).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도 몇 가지 백신이 필요하다. 이것들은 확신의 백신이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확신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승리한다.

1.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자고 유혹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의 백신이 필요하다. 나는 악한 일을 할 수 없다. 동조할 수 없다. 하나님께 누가 되는 일을 할 수 없다. 요셉처럼(창39), 다니엘처럼(단1)

2.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세상이 누가 무어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는다는 확신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3. 세상 나가서 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고통이 심하다.

이 세상의 고통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예수님이 나를 놓지 않고 도와주신다는 확신의 백신
질병, 경제, 결혼, 자식 문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의 백신

요일5:14,15

4. 휴거와 부활의 확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면 구원의 확신이 희미할 때도 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죽은 자들 문제,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사나?

주님의 말씀(살전4:16-18),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18).

우리에게는 (*) 부활이 있다. (*) 휴거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런 말씀들로 확신의 백신을 맞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나가자.

부정선거,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경화, 적그리스도의 시대, 앞날이 밝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백신, 확신의 백신이 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의 백신, 하나님의 백신

성경이 주는 백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나가는 우리가 되자. 롬8:28